GANGJIN
Web
Contents

목차

목차 2
시문학파 소개 3
1930년대 창간된 시전문지 『시문학』 3

1930년대 창간된 시전문지 『시문학』

1930년대 창간된 시전문지 『시문학』 을 중심으로 순수시 운동을 주도했던 시인들을 시문학파라고 한다.

시 문학파의 핵심인물은 용아 박용철과 영랑 김윤식이며, 여기에 정지용, 위당 정인보, 연포 이하윤의 참여로 창간호가 발간되었고, 뒤이어 수주 변영로 · 김현구가 제2호에, 신석정 · 허 보가 제3호에 동참하였다. 『시문학』 은 1930년 3월 5일 창간하여 그해 5월 20일 제2호, 1931년 10월 10일 제3호를 끝으로 종간되었다.

하지만, 당시에 풍미했던 카프문학과 감각적 모더니즘에 휩쓸리지 않은 채 이 땅에 순수문학의 뿌리를 내리게 한 모태가 되었다.

「시문학」 창간호(제1호)

「시문학」 (제2호)

「시문학」 (제3호)

COPYRIGHT ⓒ GANGJIN-GUN. ALL RIGHT RESERVED.

GANGJIN

Web Contents